

국어의 어제와 오늘

제 1 강 국어의 어제

이번 시간에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오늘날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알아보려고 해요. 이를 바탕으로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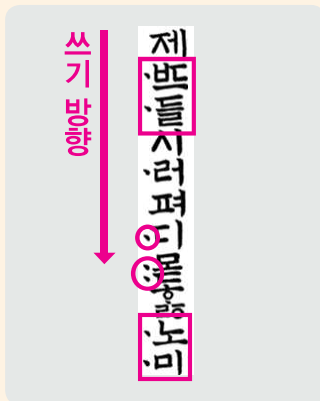
우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요. 중세 국어 하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중세 국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 국어와 달라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세 국어 역시 우리말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다음 자료는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어지(御旨)’예요. ‘어지’는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한 세종 대왕이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힌 글로, ‘어제 서문(御製序文)’이라고도 합니다. 국어의 역사를 구분할 때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시기를 ‘중세’라고 하는데, 이 ‘세종어제훈민정음’은 중세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그럼 ‘어지’를 살펴보면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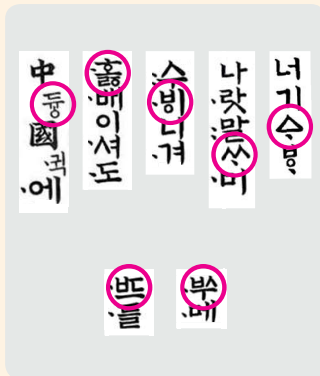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

나탈살스미
中國 에말하
文_문字_자 와로서스곳디아니홀스
이런전초로아린首_수姓_성 이니르고
저홀배이셔도
무츨내제쁘들시러퍼디물_물롬노미하
나라
나이를爲_함하야어엿비너겨
새로스를여_여字_자 불릿기노디
사름마다_한스비니겨날로부메便
安_안한 크고저홀사르미니라





첫째, 표기와 음운의 차이를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가로쓰기를 하고 있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는 세로쓰기를 했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쁘·들’과 ‘·노·미’는 현대 국어에서라면 각각 ‘쁜을’과 ‘놈이’로 ‘끊어 적기’를 했을 텐데, 중세 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했어요. 그리고 ‘퍼·디:몬·훈’처럼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어요.



‘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는 ‘ㅇ(옛이응), ㅁ(여린히응), ㅂ(순경음 비읍), ㆍ(아래아)’ 등과 같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가 존재했어요. ‘어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치음)’도 중세 국어에 있었던 글자예요. 이 중 ‘ㅂ, ㆍ, △’은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운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예요.

또한 ‘·쁘·들’, ‘·부·메’와 같이 중세 국어에는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어요. 이들을 ‘어두 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대 국어에서는 ‘뜻을’, ‘쑤에’처럼 된소리로 바뀌었어요.

둘째, 문법의 차이입니다. 우선 ‘어지’의 현대어 풀이를 살펴보죠.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

[현대어 풀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히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나라의 말이
나랏말싸미 中國과 달라
에르아

백성이 이르고자 하니 바가 있어도
百姓이 이르고자 하니 바가 있어도
에르아

‘나·랏·말싸·미·中·國·과·달라·아’는 현대 국어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인데요. 이를 통해 중세 국어의 조사 ‘에’가 비교를 나타내는 현대 국어의 조사 ‘와/과’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또 ‘百·백·姓·성·이·니르·고·저·흠·배(바 + ㅏ)·이·셔·도’는 현대 국어로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인데요. 이를 통해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중세 국어에서는 ‘이/ㅏ’만 쓰였고, 현대 국어에서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어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가’가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제
제
뵈
뵈

스물여덟
스물여덟
자
자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어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 ㅜ, ㅡ)이나, 음성 모음(ㅡ, ㅗ, ㅣ)이나에 따라 조사나 어미가 선택된 거죠. 이를테면, ‘쁘·들(쁜을)’처럼 음성 모음 다음에는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쫘·를’처럼 양성 모음 다음에는 양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었어요. 반면에 현대 국어에서는 ‘자를’과 같이 양성 모음 다음에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죠.

서로

어린

마지막으로, 어휘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중세 국어에 쓰인 어휘 중에는 형태나 의미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것이 있어요. ‘어지’의 현대어 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르’는 ‘서로’를 뜻하는 말로 현대 국어와 형태만 다르죠. 반면에 형태는 비슷하지만 현대 국어에서 그 의미가 달라진 어휘도 있어요. ‘어·린’ 같은 어휘가 그러한데,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의미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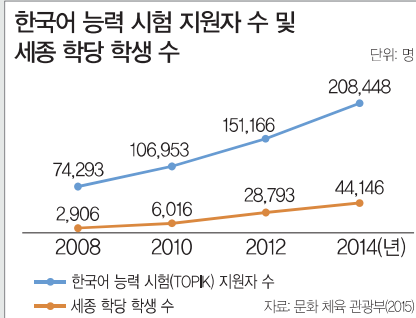
지금까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표기 및 음운, 문법, 어휘의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국어의 역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국어의 소중함도 느꼈길 바랍니다.

제2강 국어의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거예요. 다음 그래프를 볼까요?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



이 그래프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지원자 수 및 ‘세종학당’ 학생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예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 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세종학당은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와 세종학당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단니, 자랑스럽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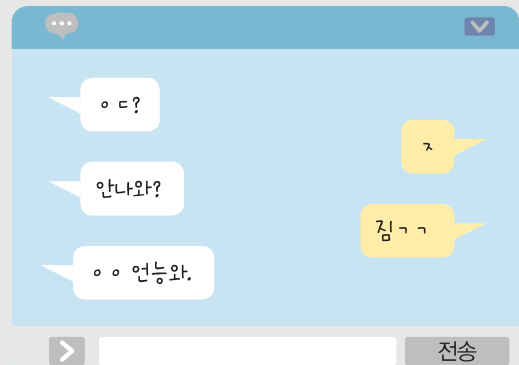
한국어가 한민족만의 언어가 아닌, 세계인의 언어로 주목받으며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의 주인인 우리가 국어를 함부로 사용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다음 자료를 같이 볼까요?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예



유니크한 디자인과 비비드한
컬러가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셀럽들이 초이스한
핫아이템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언어를 잘못 사용한 예



왼쪽 자료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 예이고, 오른쪽 자료는 가상 공간에서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예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일상생활에서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국어를 잘못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국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국어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자신이 국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국어를 사랑하며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국어의 어제와 오늘」을 읽고, 1강에 제시된 ‘어지’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世·생宗중御·영製·쟁訓·훈民민正·정 품흙

나·랏:말 ㅅ·미 中 國·꺾·에 달·아 文 文 字·쫘·와·로서 르스 ㅅ·디
아·니 ㅎ·ㅅ·이 런 전·츠·로 어·린 百·빅 姓·성·이 니 르·고·저·흙·배
이·셔·도 ㅁ·츄:내 제·ㅼ·들 시·러 꺾·디:몬 ㅎ·노·미 하·니·라
·내·이·를 爲·윙·ㅎ·야:어 옛·비 너·겨·새·로·스·물 여·뽕 字·쫘·를
땡·ㄱ 노·니:사 립:마·다:히·여:수·비 니·겨·날·로·뿌·메 便 便 安 安
·크 ㅎ·고·저 ㅎ ㅅ ㄹ·미니·라

—『월인석보(月印釋譜)』, 세조(世祖) 5년(1459)

(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표기 및 음운의 특징을 찾아 바르게 연결해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성조를 방점으로 나타냄.

표기에서 주로 이어 적기의
방법이 쓰임.

가로쓰기를 하고 어절 단위
로 띄어쓰기를 함.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않음.

‘ㅇ, ㆁ, ㆏, .’ 등의 자모가
쓰임.

(2) 다음 중세 국어를 현대 국어로 풀이하고,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써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나·랏:말썸·미中동國·꺀·에 달·아	나라의 말이 중국__ 달라
니르·고·저·흙·배이·셔·도	이르고자 하는 바__ 있어도

→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

④ '어지'의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여 중세 국어 어휘의 의미를 찾아본다. 어휘의 변화 양상은 형태와 의미를 고려하여 비교해 본다.

(3) 다음 중세 국어의 의미가 현대 국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써 보고, 어휘의 변화 양상을 정리해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어휘	의미	의미
ㅁ·츄:내		
:어엿·비		예쁜게

어휘의 변화 양상

2 2강 에서 설명한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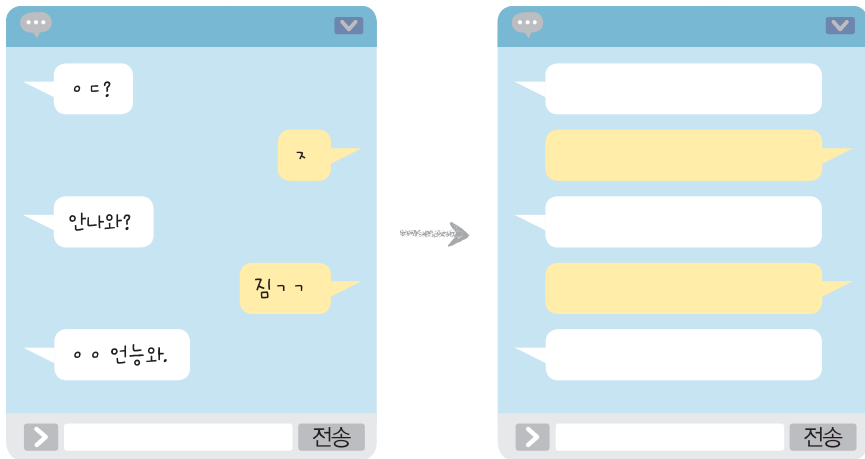


3 2강 에 제시된 부적절한 국어 표현을 언어 규범에 맞게 고쳐 보자.

(1)



(2)



4 자신의 국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국어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자.

(1) 다음 질문에 따라 자신의 국어 사용 실태를 점검해 보자.

-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보다 고유어나 순화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가?
- 컴퓨터나 휴대 전화를 이용해 가상 공간에서 대화할 때 언어 규범에 맞게 사용하는가?

Q 평소 국어와 문법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국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다.

(2) 앞의 활동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국어 발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